

구비전승 속 여성의 괴물 퇴치 서사 연구*

- 시베리아 「쿠바이코」, 중국 「李寄斬蛇」,
그리고 한국 「두꺼비와 처녀」까지 -

김준희**

- I. 들어가며
- II. 여성 주인공의 존재 양상과 괴물의 정체
- III. 타자성의 결합을 통한 괴물의 퇴치와 폭력의 해소
- IV. 「두꺼비」 속 타자 간 일시적·차별적 환대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시베리아 타타르 족의 신화 쿠바이코 이야기(이하 「쿠바이코」), 중국 후젠성[福建省] 지역의 전설 「李寄斬蛇(소녀 이기가 뱀을 베다, 이하 「이기」)」, 한국 「두꺼비와 처녀」를 대상으로 하여 구전 신화·전설·민담 등에서 여성이 주도자가 되어 괴물을 퇴치하는 서사를 탐색한 연구이다. 먼저 「쿠바이코」에서 주인공 쿠바이코는 괴물에게 희생당한 오빠를 되살려 내는데, 그는 손님으로 이계에 방문하여 오히려 저승의 왕에게 대접을 받고, 초인간적 능력을 획득한다. 중국 후젠성 지역의 「이기」는 소녀 이기가 처녀를 제물로 요구하는 뱀을 처단하고자 스스로 무기를 가지고 뱀의 굴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483).

이 논문은 2021년 국문학회 하계 학술대회(2021.8.18.)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 당시 토론을 맡아 주신 한유진 선생님, 발표 후 질의·조언해 주신 조현설 선생님, 그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세 분 등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심사 과정에서 받은 질의와 조언에 힘입어 논문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들어가 뱀을 퇴치한다. 두 이야기에서 여성 주인공이 직접 괴물을 제압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한국 「두꺼비」의 처녀는 희생 제물로 등장하기에 상대적으로 운신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처녀는 두꺼비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괴물이 정체를 공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처녀는 인간의 세계에서 배제된 타자로, 처녀 공희를 행하는 인간의 폭력 역시 또 다른 괴물이었다. 그러나 서로에게 타자이자 외부자인 처녀와 두꺼비는 문턱을 넘어 일시적인 환대를 성취하고 괴물을 퇴치한다. 기존의 인간 공동체가 약자를 배제하는 임시방편으로 폭력을 지속해 온 데 비해, 처녀와 두꺼비는 타자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의 교류는 일시적이고 차별적이거나, 인간 공동체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타자성에 의존하여 괴물을 퇴치할 수 있었다. 이 타자성, ‘다름’의 영향력이 「두꺼비」에서 괴물을 퇴치하는 힘이 된다. 처녀가 직접적 완력 대신 타자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괴물을 퇴치한 것은, 여성 주인공이 가질 수 있는 ‘퇴치 능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두꺼비」의 처녀는 쿠바이코나 이기와 달리 완력도 지니지 못하고 수동적 제물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그 불리함을 다른 타자와의 만남으로 상쇄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추가적 보상을 얻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핵심어: 쿠바이코, 이기, 두꺼비와 처녀, 괴물, 퇴치, 폭력, 타자성, 환대

1. 들어가며

본고는 동북아 지역의 구비설화를 중심으로 ‘여성이 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를 탐색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설화 속에서 ‘괴물’의 피해자이거나 희생자이기보다는 괴물 퇴치를 주도하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위상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괴물’에 대한 구비설화에서 여성의 형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하국대적퇴치」(이하 「지하국」) 설화에서 남성 영웅이 괴물을 퇴치할 때 여성은 조력자로 등장하기도 하나 우선은 구출의 대상으로 등장하며, 여성과

의 결혼은 남성 영웅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혹 우리에게 더 익숙한 대상은 ‘구미호’ 같이 괴물적인 여성인지도 모른다. 남성 영웅이 주인공인 괴물 이야기에서 여성은 구해지거나 퇴치되는 ‘대상’에 머무르기 쉬운 것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창세신화에는 남성신과 여성신이 모두 등장하며 한국에서도 ‘마고할미’와 같은 여성신이 그 힘을 사용하여 창조를 수행하는 신화가 전승된다. 그렇다면 구출의 대상이나 퇴치의 대상이 아닌, 퇴치 주체인 여성의 모습도 괴물 이야기에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괴물을 퇴치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는 구비 전승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성이 ‘대상’이기보다 ‘주체’로서 등장하면서, 행동의 직·간접적 결과로 괴물이 제거되는 서사를 탐색해 보았을 때 엄밀히 말해 『지하국』의 완전한 ‘성 반전 버전’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하국』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의 괴물 퇴치 서사’를 가능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시베리아 타타르 족의 신화 쿠바이코 이야기(이하 「쿠바이코」), 중국 후젠성[福建省] 지역의 설화 『李奇斬蛇(소녀 이기가 뱀을 베다, 이하 「이기」)』에 우선 주목하였다. 「쿠바이코」는 소녀 ‘쿠바이코’가 지하 세계 괴물에게 살해당한 오빠의 머리를 찾으러 지하 세계로 내려가 시험을 통과하고 오빠의 머리를 찾아와 소생시켰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쿠바이코는 괴물을 존재 자체를 제거한 것은 아니나 괴물에 의해 훼손당한 오빠의 생명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괴물이 가져온 불행을 퇴치한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기」는 『수신기』에도 실려 있는데, 이기(李奇)라는 소녀가 자진하여 뱀의 동굴에 가 마을을 괴롭히는 뱀을 베어 죽였다는 이야기이다.

일찍이 손진태는 ‘대사제치설화(大蛇除治說話)’를 소개하면서 한국 「두꺼비와 처녀」를 먼저 제시한 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추론하면서 「이기」를 언급한 바 있다.¹⁾ 광진석은 「쿠바이코」를 「바리데기」와 유사한 ‘영혼여행담’으로 소개하였으며²⁾, 김화경은 일본 신화 속 괴물 퇴치담과 「이기」의

1) 손진태,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54, 188~190면.

2) 광진석, 『韓國의 靈魂旅行談과 시베리아 샤머니즘』,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

영향 관계, 『쿠바이코』와 『지하국』의 친연성 등을 논의하였다.³⁾ 해당 연구들은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시사점을 준 한편으로, 주요 관심은 각 나라 설화들의 영향 관계를 살피는 데 있었다. 이에 ‘괴물 퇴치에 있어서 여성 주인공이 갖는 의미’에 대한 조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⁴⁾ 예를 들어 『지하국』과 『쿠바이코』가 공유하는 ‘지하(저승) 여행 모티프’에 주목할 경우 모티프의 보편성을 논의하기는 용이하나 『쿠바이코』가 여성의 괴물 퇴치담으로서 갖는 의미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지네장터』로도 알려진 『두꺼비와 처녀』(이하 『두꺼비』) 설화는 ‘동물보은담’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 바 있다.⁵⁾ 이 이야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된다. 마을에 재앙이 계속되자 한 처녀가 제물로 바쳐졌는데, 처녀가 밥을 먹여 주었던 두꺼비가 제당에서 괴물 지네를 물리치고 처녀가 살았다는 이야기이다.⁶⁾ 그간 『두꺼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신공희’, ‘희생제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었다. 박종성⁷⁾, 오세정⁸⁾, 이영수⁹⁾, 심우장¹⁰⁾, 이정재¹¹⁾, 노영근¹²⁾, 신희림¹³⁾, 김수연¹⁴⁾ 등의 연구에서

회, 1998, 341면.

3)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96~97면 및 104~105면.

4) 김열규 역시 동북 시베리아 신화를 비교연구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에서 『쿠바이코』를 소개하고 언급하였다. 다만 샤머니즘 신화 연구의 관점에서 ‘샤먼’의 타계 여행에 주목하였기에 본고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3.) 조현설 또한 『바리데기』 속 저승의 ‘중간계’적 성격을 논하면서 『쿠바이코』 속 저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조현설, 『저승, 우리 신화의 중간계』,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172~173면.) 신연우 역시 『바리데기』와 중국 『妙善』 설화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쿠바이코』를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신연우, 『<바리공주>와 중국 <妙善> 및 유사설화 비교의 관점』, 『한국무속학』 제27집, 한국무속학회, 2013, 130면.)

5)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보은’이라는 개념이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본고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만을 내세운 『두꺼비와 처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6)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담집에도 수록되었으나(김수연, 『동물보은담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화해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38집, 열상고전연구회, 2013, 469면 참조), 본고에서는 구비전승되는 『두꺼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7)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8) 오세정, 『희생서사(犧牲敘事)의 구조(構造)와 인물(人物) 연구- <바리공주>·<지네장터>·<심청전>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9)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10)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제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11)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인신공희 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사신(蛇神)’ 퇴치 설화로서의 성격, 희생제의 서사로서의 성격, 동물‘보은’담으로서의 성격 등이 풍부하게 논의되었다. 그런데 희생제의 서사로 접근할 때 처녀는 우선적으로 ‘희생물’, ‘구출 대상’이라는 표지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두꺼비의 ‘보은’에 초점을 둘 때에도 처녀는 보은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기 쉽다. 『지하국』 및 다른 설화의 주인공들과 『두꺼비』의 처녀를 동질적 ‘인간’으로 전제하는 접근 역시 처녀를 다른 퇴치자들에 비해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든 두꺼비의 ‘보은’을 발생시킨 것은 처녀이기에, 본고에서는 처녀의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괴물 퇴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갖는 맥락을 그려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통해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첫째, 희생제의 관련 논의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희생의 ‘대상’보다 희생을 ‘극복’한 주체로서 『두꺼비』의 처녀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극복의 배경과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처녀와 두꺼비의 상호 ‘협력’ 관계를 주목하더라도, 처녀와 두꺼비의 관계에서 바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귀납하여 ‘동물의 보은’을 논의할 수 있는가? 전자가 지네 퇴치에 있어서 처녀의 ‘주어’ 역할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라면, 후자는 처녀와 두꺼비가 각각 인간과 동물 내에서 갖는 차이, 타자성 등을 탐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질문 위에서 본고가 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이야기들에서 여성 주인공이 괴물 퇴치에 나서는, 혹은 괴물에 희생될 뻔한 계기를 살펴본다. 이는 여성 주인공의 행위 동기와 외부 세계의 의미를 구명하는 작업이다. 둘째, 여성 주인공의 괴물 퇴치 서사를 주장하려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이때 세 이야기 속 퇴치를 ‘직접적 퇴치’·‘조력자 두꺼비를 통한 ‘간접적 퇴치’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각 행위가 형상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통해 『두꺼비』에

12) 노영근, 「<두꺼비 보은>형 민담의 유형분류와 해석」, 『비교민속학』 제46집, 비교민속학회, 2011.

13) 신호림, 「<지네장터>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극복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14) 김수연, 앞의 논문.

서 처녀가 보여 준 퇴치의 의미를 고찰한다. ‘희생양’ 혹은 ‘희생제의’ 관련 논의 등은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본고에서 관련 논의를 반복, 추가하지는 않으려 한다. 이 분야의 논의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인용하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한국 『두꺼비』는 『한국 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등을 통해 화자들의 구체적 담화와 다양한 변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쿠바이코』와 『이기』는 주로 문헌을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에 자료의 층위에 불균형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 주인공과 괴물 퇴치의 주요 요소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을 경유하여 『두꺼비』로 진입하려는 것이다. 나라별로 흩어져 있던 이들 여성 주인공들이, ‘괴물 퇴치의 주체’라는 쟁점에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여성 주인공의 존재 양상과 괴물의 정체

먼저 시베리아 타타르 족의 『쿠바이코』를 살펴보겠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이계(저승)여행담’이며, 쿠바이코는 희생 제물보다는 ‘구원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쿠바이코』가 『지하국』과 유사한 이야기로 논의된 점을 생각할 때¹⁵⁾ 이 이야기를 『지하국』의 여성 버전으로도 볼 수 있고, 저승여행 모티프를 통해 쿠바이코의 샤먼적 정체성을 추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¹⁶⁾ 어느 쪽이든 쿠바이코의 남다른 용력, 신과의 교류, 소생 능력 등에서 예사 인간을 뛰어넘는 영웅의 모습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저승의 왕 일렉-칸(Irlek-Khan)의 딸이 흑여우의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나 인간을 해쳤다. 이에 영웅 콤데이 미르간(Komdei-Mirgan)이 나섰으나 여우를 사냥하다 다리가 부러졌다. 얼마 후 뿔이 마흔 개 달린 소를 타고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 엘베겐(Yelbegen)이 콤데이 미르간의 머리를 잘라 지하세계로 가져갔다. 여

15) 김화경, 앞의 책, 96면.

16) 김열규, 앞의 책, 38~39면.

동생 쿠바이코는 머리가 없어진 오빠의 시체를 보고, 저승으로 가서 오빠의 머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엘베겐이 타고 왔던 황소의 발자국이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쿠바이코는 일렉-칸의 왕국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쿠바이코는 우유를 끊임없이 붓는 노파, 황량한 모래밭 위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말, 푸른 들판 옆에서 수척하게 서 있는 말,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은 시냇물 등을 보았다. 쿠바이코는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갔고, 엘베겐이 탔던 소의 발자국을 따라 일렉-칸의 집에 도착했다. 쿠바이코는 집 앞 나무에 말을 묶으면서 어떤 비문을 보았다. ‘쿠다이(신)가 친지를 창조할 때 이 나무도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나무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았다.’

집 안에 들어간 쿠바이코는 여러 개의 방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끝없이 일하는 노파, 고통스러워하는 노파와 중년 여인들, 목이 매달린 남자들, 총에 맞은 남자들, 중상자들,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들, 싸우는 부부들 등이 있었다. 이 방들을 지나 열 번째 방으로 들어가자 일렉-칸이 있었다. 쿠바이코는 일렉-칸과 저승의 왕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엘베겐이 왜 오빠의 머리를 잘라 갔는지 물었다. 왕자는 자신들이 명령한 결과라고 대답하면서, 만약 쿠바이코가 땅 속에 깊이 누워있는 뿔 일곱 개 달린 염소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머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쿠바이코 역시 머리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쿠바이코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 번째 시도에서 염소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일렉-칸의 왕자는 쿠바이코에게 오빠의 머리를 내주었고, 쿠바이코에게 지상으로 돌아가는 길과 일렉-칸의 집(저승)에서 본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쿠바이코는 오빠의 머리를 챙겨 신으로부터 얻은 생명의 물과 함께 돌아와 죽은 오빠를 되살려냈다.¹⁷⁾

쿠바이코의 저승 여행은 오빠 콤데이 미르간이 실패한 뒤부터 시작된다. 쿠바이코의 행위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 정에 동기를 두고 있으며, 희생양 선발 등과 같은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쿠바이코가 모험을 떠나는 계기, 즉 쿠바이코의 오빠 콤데이 미르간이 머리를 잘린 이유도 명확하다. 그는 저승의 공주를 공격한 응보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17) 이 『쿠바이코』의 자료는 Uno Holmberg, “The Realm of the Dead”, *The Mythology of All Races: Finno-Ugric, Siberian* Volume IV, Boston: Marshall Jones, 1927, pp. 489~494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였다. 광진석, 앞의 논문, 341면에도 줄거리가 요약 제시되어 있다. 광진석의 번역을 참조하면서 줄거리를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하였다.

쿠바이코가 오빠를 죽인 괴물 엘베겐, 혹은 그 주인 일렉-칸과 직접 싸운 것은 아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일곱 개 뿔 달린 염소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쿠바이코의 육체적 힘, '완력'이 부각된다. 쿠바이코는 염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완력을 지녔기에 오빠의 머리를 되찾아 소생시킬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쿠바이코가 괴물을 퇴치하기 전까지 저승 세계 여행이 매우 장황하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쿠바이코는 지상 세계의 모순과 고통을 보여주는 방들을 지나 저승의 왕 일렉-칸을 대면한다. 그런데 이 여행은 단순히 괴기스러운 저승 구경이 아니었다. 저승으로의, 그리고 저승 안(일렉-칸의 집 안)에서의 여행을 통해 쿠바이코는 보통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징벌 등을 목격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¹⁸⁾ 저승의 손님 쿠바이코는 시험을 통과하고 종래에는 저승의 왕자들에게서 필요한 정보까지 얻어낸다. 비록 오빠를 죽인 괴물이나 저승의 왕 자체를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쿠바이코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해결하고 범인은 지닐 수 없는 경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쿠바이코」 속 괴물 퇴치는 이계 여행, 손님으로서의 주인공이 저승의 주인을 압도하는 양상, 초월적 능력의 획득 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어서 중국 후젠성 지역의 「이기」를 살펴보겠다. 아래는 『중국민간고사집성』의 자료를 옮긴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한나라 때 남평현성의 용령은 산이 높고 기세가 험악했다. 서북면의 한 동굴 속에는 큰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물독보다 더 굵고 길이가 몇 길이나 되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관리도 여럿 물어 죽이는 등 인심을 흉흉하게 하여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다고 한다. 뱀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돈을 모아 동굴 입구 가까운 곳에 절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소와 양을 바쳐 뱀의 배를 채웠다. 그러나 뱀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 백성들을 해쳤다. 오래지 않아 뱀은 또 모습을 드러내 열두세 살의 소녀를 먹겠다고 하였다. 관청과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관가의 하녀, 죄인 가족의 여자 등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9년 동안 뱀은 매년 젊은 여자 한 명을 잡아먹었다. 아홉 명의 불쌍한 여자들은 이렇게 날 것으로 잡아먹혔다. 10년째가 되자 관청에서는 제물로 바칠

18) 박진석, 앞의 논문, 341~342면.

여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열서너쯤 된 소녀가 스스로 관청에 와서 제물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관리가 “너는 노비의 딸도 아니고, 죄인의 딸도 아닌데 왜 제물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소녀는 “백성을 위해서 화근을 없애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소녀는 이기(李奇)라고 하는데, 여섯 자매의 막내이고, 아버지도 기를 가장 귀여워하였다. 기는 어릴 때부터 힘을 단련했는데, 담력이 유달리 크고 계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큰 뱀이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안 후, 뱀에 대해 뱃속 깊이 한을 품고 밤낮으로 죽일 생각을 하며 백성들의 해를 없애고 죽은 여자들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기는 부모에게 “부모께서 우리 자매 여섯을 낳으셨지만 남자 형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옛날의 제영(緹縈)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는 없겠지만, 몸을 팔아 제물로 가서 돈으로 봉양하여 그나마 효를 다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모는 딸의 말을 듣고 놀라 오몸을 떨었다. 어떻게 딸을 제물로 보내서 뱀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려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기는 기어코 집을 뛰쳐나와 관청에 와서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현관(顯官)은 기의 결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보검 한 자루와 사냥개 한 마리를 주었다. 제사를 지내는 날, 기는 손수 제물을 장만하여 쌀가루로 떡을 만들고 훈련된 사냥개를 데리고 예리한 칼을 차고 동굴 근처로 갔다. 기가 제물을 동굴 앞에 두고 절당에 앉자 개도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시간이 지나자 뱀이 향기를 맡고 제물을 먹으러 나왔다. 머리는 독보다 크고 눈은 물통만하고, 입은 산굴 같고, 헛바닥은 화염과 같았다. 뱀은 제물을 다 먹자마자 입을 크게 벌려 기를 먹으려고 하였다. 기는 뱀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뱀을 피한 뒤 칼을 휘둘러 뱀의 머리를 향해 한 번 내리쳤다. 사냥개가 뱀에게 달려들어 뱀의 머리를 물어뜯었고 기는 칼로 뱀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을 멀게 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자 뱀은 동굴로 들어갔고, 기는 용감하게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뱀과 싸우기 시작했다. 기에게 수차례 베인 뱀은 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냥개가 달려들어 또 다른 한쪽 눈을 멀게 했다. 그리고 기가 달려들어 몇 번 칼을 내리치자 뱀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다. 백성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거리마다 서로 퍼져나갔다. 민월왕이 이 일을 알게 되자 이기를 왕후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기는 거절하고 시골에 남아 마을 자매들과 함께 밭을 갈고 천을 짜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밑줄은 인용자)

1987. 1. 후젠성 난평(南平)시 시친(西芹) 지역 차이청차오(蔡承焯, 남, 42세)

구술¹⁹⁾

이기의 이야기는 거의 같은 내용이 『수신기』에도 실려 있다. 다만 『수신기』에서는 기가 “딸이란 비록 있다 하여도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자신을 희생하여 부모님께 공양하겠다고 뱀의 제물로 나서는 반면²⁰⁾, 위 인용문에서는 기가 ‘백성을 위해서’ 나서는 점이 다르다. 또한, 『수신기』에서는 기가 뒷날 왕후가 되는 반면 위에서는 기가 오히려 왕의 청혼을 거절하고 본래의 삶을 지속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기가 칼을 지니고 개를 데려갔다는 점은 모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즉 기 자신이 직접 괴물을 공격하려고 나섰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쿠바이코』에 괴물이 오빠의 머리를 가져간 이유, 쿠바이코가 오빠의 복수를 결심한 배경 등이 선명히 드러남에 비해 『이기』에는 괴물이 악행을 벌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위 인용문에서 이기는 쿠바이코처럼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괴물을 대면하려 나선다. 물론 이기가 ‘비천한 집안의 딸도 아닌데 뱀 퇴치에 자원하였다’는 배경 이외에 ‘비천한 집안의 딸이었기에 희생양으로 정해졌다가 뱀을 퇴치하였다’는 변주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이기가 칼을 차고 개를 데리고 갔다는 점에서는 동굴을 방문할 때 ‘퇴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쿠바이코』에 비해 『이기』에서 공간 이동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나, 뱀과 조우하는 장소가 집이 아닌 공간임은 공통된다. 뱀이 ‘구멍’에서 나와 ‘마당’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공간에서 벗어나 무력해진 뱀의 최후를 의미한다.

또한, 기가 데려간 개는 동물 조력자의 존재를 명시한다. 그러나 소위 동물‘보은’담처럼 개에게 이기로부터 입은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에는 기가 오래전부터 뱀을 잡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기가 뱀을 직접 베어버렸기 때문에 개가 뱀과 맞서 싸우다 기력을 소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결말도 없다. 다만 후일담을 통해 주인공 기와 가족의 행복, 혼인과 신분 상승(『수신기』의 경우)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어서 살펴볼 『두꺼비』를 쉽게 연상시킨다.

19)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中國民間故事集成·福建卷』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福建卷』, 北京: 中國ISBN中心, 1998, 32~33면.

20) 干寶, 임동석 역주, 『搜神記』(完譯詳註 漢典大系 17), 동문선, 1997, 706면.

이제 한국 「두꺼비」로 시선을 돌려 보자. 이 이야기에서 여성 주인공인 처녀는 비자발적, 혹은 반자발적 희생 제물로 등장하기에 그 행동에 큰 제약이 있다. 「이기」에서도 소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나타나지만 주인공의 처지, 의도 등은 상이하다. 「두꺼비」의 처녀에게 더욱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처녀는 왜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을까? 각편에 ‘지네가 마을에 해를 끼쳐서 / 당연히 처녀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언술이 나타나지만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크기가 작은 지네 혹은 뱀이 실제로 마을에 어떤 형태의 해를 끼치는지 각편 속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화자들은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제물을 바쳐도 1년마다 재앙이 반복되었다는 부연은 등장하지만, 제물을 바치지 않는 대안 혹은 제물을 받는 ‘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 화를 피하려는 ‘나머지’ 사람들의 공동체적 폭력에 주목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신호림이 “[지네를 악 ‘신’으로 볼 경우-인용자]신적 폭력은 인간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그 결과 “공동체의 만장일치적 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에 크게 공감한다.²¹⁾ 다만, 이면에서는 신적 폭력이 공동체의 폭력을 바꾸지 않는 ‘명분’으로도 기능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형태로든, 약자를 ‘뿔아’ 희생시키는 폭력에 신의 존재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래 인용문들은 폭력의 명분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 지방에서 예전 어느 장수가 전쟁을 하구 나서 죽은 뒤에 그 지방에다가 큰 누각을 지었어. … 그러니깐 동네 사람들이 그 제향을 안 지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그 우리네가 지내는 거 아니구 말이지, 위에서들 그렇게 지내던 건데 아 우떡게 지내느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천 년이 넘었는지 이천 년이 넘었는지 이렇게 됐어. 그러다 어느 쟈네 차차차 아 동네서 가다가다 변상이 난단 말이

21) 신호림, 앞의 논문, 206면.

야. 변상이 나는데 가다간 여자두 하나씩 없어지기두 하구 또 가다가 어떤 그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거던. 그러니께 ‘이게 이상하다’ 인제 생각을 하구 있는데, 동네에서 이르기를 ‘이건 이렇해서 안 되겠으니께 우리 이 집을 갖다가 아 춘추루다 제를 안 지내서 이렇다.’ 인제 이렇게 된 거야.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두 그냥 지내서는 말이 안 되어. 그러니께 그 누각에다가 참말루 처녀를 갖다가 하나씩 데려다간 거기 앉혀 놓구. 아마 이 죽은 큰장사된 그런 분이 혼이 되 가지구서, 아마 그리워서 그런 모양이라구 생각을 하구 말이지. 거기다간 여자를 갖다간 하나씩 앉혀 놓구 참 단장을 잘하구 옷을 잘 입혀서 갖다 놔 두구는 거기다가는 제물을 많이 차려놓구는 제를 한번씩 지내면 삼년 만큼씩 돌아와, 그제. (밑줄은 인용자)²²⁾

[2]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떠한 변란이 생기나느냐 하며는 꼭 십 오세 된 처녀를 갖다가서네 삼 년에 한 번 하나씩 꼭 지사를(제사를) 지내야 돼. 지사를 지내는데 그 처녀는 죽는 거야. 뭐이 가져가는 지도 몰라 범이 가져가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는 게야. 아, 이, 인홀불견이야. 빼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걸 거 동네 사람만 알지, 애구 어른이고 저 바깥에 동네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신랑 자리를 그저 아무나 그냥 뭐해서 그냥 데려오는 거지 뭐, 가짜지 뭐, 진짜가 아니고 [청중 : 고사 올리는거지 뭐.] 그럼 그걸 모르고 준 거지 뭐, 제물이지. 그냥 인제 이 처녀도 인제 모르고 삭시가 그걸 모르는 거지. … 그것이 지사 지내는 신방 꾸미는 것이 인제 지사 지내는……. (밑줄은 인용자)²³⁾

[3] 그래서 그 해에 돌아 왔는데 사람을 고르는데 그 삭씨가 어렵구 아버지 늙고, 어머니 늙구, 세력 없구 하니께 그 색씨가 짝했다 그거여. 그러니 강약(強弱)이 부동(不同)이지. 동네서 여러 수십 명이,

“네가 대신 산 제물로 가야 되지, 그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없다.”구. “생기복덕(生氣福德)을 짚어 보구 뭐를 해도 니가 맞는다.”

고 우겨대고 그러니 강약이 부동이라구 끌려 가는데, 안 갈 수 없어. (밑줄은 인용자)²⁴⁾

각편마다 처녀의 희생 배경 혹은 희생 ‘자칭’ 동기는 다양하게 부연된다.

22) 『대계』 1-9, 545~546면.

23) 『대계』 2-5, 335면.

24) 『대계』 3-2, 220면.

위 인용문 ①~③은 처녀의 희생 배경 혹은 동기가 신과 인간의 대립보다는 인간 세계 내의 타자화와 배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재는 ‘인신공희 설화’의 특징으로 희생의 강제성, 일방향성을 거론하면서 “타협의 여지나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²⁵⁾ 그런데 이러한 폭력성이 신-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두려움, 무조건적 순종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처녀 같은 약자를 뽑는 논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희생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만큼 희생의 실상에 대해서도 다가가지 못한다.²⁶⁾

그렇다면 지네 혹은 공동체의 폭력이라는 괴물은 어떻게 퇴치될 수 있었을까? 『두꺼비』 각편을 살펴보면, 지네는 오랜 세월 해를 끼친 것치고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퇴치된다.

④ 굿더만 두꺼비가 인자 몇 해가 키웠은게 이만이나 허지 인자 그서 인자 딜 이논개로 그저는 시퍼런 무지개발이 올라가고 시퍼런 무지개발이 내로면 또 뿌런 무지개발이... 댕이 ‘괴기오’ 운게 강 절푸턱 떨어지더라네. 그리서 방문을 이렇게 열고본게[처녀를 평소 좋아하던 총각이 두꺼비를 들여보내고 밖에 있었다-인용자] 지네가 방으로 하나 되는 놈이 떨어졌드래여. 저 거시기 두꺼비는 꺾다만 남고 죽어버리고.²⁷⁾

시베리아의 쿠바이코, 중국의 기, 그리고 한국의 처녀는 모두 인간으로서 괴물의 정체를 처음 대면하고 살아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쿠바이코』에서는 괴물과 주인공의 공간이 이승-저승으로 뚜렷이 대비된다. 괴물 퇴치의 결과 쿠바이코는 저승과 이승을 모두 ‘아는’ 사람이 된다. 『이기』의 경우 큰 뱀이 마을을 괴롭힌다는 서술이 처음에 나타나지만-문헌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줄거리가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뱀이 굴에 가서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은 평소에는 현실에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도 기는, 집요하게 뱀을 쫓아 들어가 그 정체를 완전히 대면한 유일한 인간이다.

25) 이정재, 앞의 논문, 140면.

26) 이영수 역시 마을 사람들이 “대체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신공희를 행하”는 양상을 지적하였다. 이영수(2004), 앞의 논문, 90면.

27) 『대계』 5-5, 702면.

물론 미지의 괴물이 정체를 드러내고 징치되는 서사는 괴물 퇴치담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꺼비』에서 괴물의 정체 공개는 제물인 처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처녀는 원래 괴물에게 살해당하기로 ‘정해진’ 인물이었기에 괴물이 등장하여 처녀를 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야 했다. 괴물은, 마을 전체에 화를 입힐 때에는 구체적 모습을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처녀라는 개인에게 접근하면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자면 처녀가 괴물의 공간에 들어갔기에 괴물이 지네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결국 괴물로 하여금 본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처녀의 첫 번째 ‘임무’가 되었다.

지네라는 정체가 드러났을 때, 괴물의 실체는 두꺼비 독으로 죽일 수 있는 ‘짐승’으로 축소된다. 지네-괴물의 입장에서는 두꺼비와 처녀 앞에 나타난 것이 최대의 패인(敗因)이었던 셈이다. 지네는 제당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당 안에서 두꺼비와 독 뱀기, 몸싸움 등을 벌이다 사멸한다. 처녀에게는 쿠바이코의 완력이나 기(寄)의 칼 대신 두꺼비라는 ‘살아 있는’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꺼비 역시 괴물 ‘지네’ 앞에서야 자신의 능력을 공개한다는 점이다. 처녀를 따라 들어와 지네를 만나지 않았다면 두꺼비가 독을 뱀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자들이 두꺼비의 지네 공격을 ‘신기하고 징그럽기도 한’ 광경으로 묘사하는 데 비해, 처녀는 두꺼비의 정체를 목격하고도 놀라워하지 않는다. 일부 각편에서 두꺼비와 지네가 싸우는 도중 처녀가 정신을 잃었다는 부연이 등장하나, 처녀가 독을 뱀는 두꺼비의 정체를 보고 이전과 달리 두꺼비를 경계하고 무서워했다는 부연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괴물의 퇴치 수단은 처녀와 두꺼비라는 ‘작은 공동체’에만 배타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두꺼비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괴물을 퇴치할 수단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능력이 모자랐기보다, 그만큼 괴물이 주는 피해와 공포가 극심했으며 희생양 선발이라는 소모적 처방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마을 내에서는 해결 수단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처녀만이 두꺼비를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셈이다.

그런데 처녀를 희생시키는 공동체의 폭력을 상기한다면 이 설화 속 괴물은 지네뿐만이 아니다. 괴물의 ‘불확실성’에 착안한다면 ‘연기’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재앙을 일으키던 지네뿐만 아니라 이유를 납득하지도 못한 채 ‘불문의 규칙’을 유지하던 공동체 역시 괴물이다. 인간 세계 내 처녀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처녀는 자신을 타자화하고 배제하였던 공동체라는 괴물을 퇴치한 셈이다. 그리고 이 ‘내부의’ 괴물이 바로 『쿠바이코』·『이기』와 『두꺼비』를 가르는 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기』에도 약자를 희생시키는 체계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주인공이 직면한 위험을 고려하면 폭력의 심각성은 『두꺼비』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처녀가 직접 독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꺼비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처녀가 괴물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소수 존재한다. 다음 인용문은 지금의 부산 지역에서 채록된 각편의 일부이다.

⑤ 어느 날, 그 마을 처녀가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다 카던 모양이라. 가면서 그 처녀가 지혜가 있었는지 말하자면 석우황(石雄黃)으로 지니고 갔더라 이기지. [청중: 석우황?] 석우황카든 그 비상을 가지고 제조한 액인데 독액입니다. 그기 한약방에 사용하는데, 매독 성분 같은 거 그런데다가 비상경분(砒霜經粉)도 쓰고 석우황 카는 거 씹는다. 매독성 그런 병에 써는(쓰는) 액인데, 그런데 [청중: 사람이 묵으면 죽는다 아이가?]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종이에 싸 가지고 자기 품에다가 품어 갔는데, … 날이 밝아 가니깐 처녀는 살아있고 그거 괴물은 죽었더라.

그래서 괴물 잡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것 갖다 안 바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길 합니다.

그래 그 처녀는 어찌 모면을 했던가 이런께, 사정없이 큰 그런 괴물이가 입을 벌리고 처녀를 주우 무을(먹을) 듯이 자기가 품에 품었던 석우황을 갖다가 입에다가 먼침(먼저) 여어 빼렸어. 여어 버리고 나아가네 처녀는 뭐 주우 묵을 여기 없이 그만 뒹굴뒹굴 구부더니 뺏어뺏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녀는 여전히 살아났지.²⁸⁾

처녀가 당집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다른 『두꺼비』와 동일하나, 위

28) 『대계』 8-9, 486~487면.

각편에서는 처녀가 직접 독을 가지고 가서 괴물을 퇴치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기록된 조사 상황에 의하면, 조사자들이 「지하구 대적 퇴치」 같은 이야기를 요청했더니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라고 한다.²⁹⁾ 여기에는 두꺼비도 등장하지 않고 두꺼비가 할 일을 마친 뒤 처녀를 보살펴서 데려가는 남성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처녀가 스스로 괴물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한 뒤, 마을의 재난도 사라진다. 일반적 「두꺼비」에 비해 전승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처녀가 직접 독을 가서 괴물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지역 당재와 결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서 처녀는 지네를 독으로 퇴치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간’ 퇴치자이다. 이러한 각편의 존재는 두꺼비 없이 처녀가 직접 독을 쥐고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두꺼비」에서 처녀가 지닌 퇴치 ‘능력’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두꺼비」에서 두꺼비와 처녀의 관계가 괴물 퇴치의 핵심이 됨은 중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성 주인공을 주어로 놓았을 때 처녀가 지닌 ‘능력’이 무엇이 되는지 정의해 보려고 한다.

III. 타자성의 결합을 통한 괴물의 퇴치와 폭력의 해소

「쿠바이코」, 「이기」, 「두꺼비」 중 퇴치 행위에 있어서 여성 주인공의 ‘자족성’을 따진다면 「쿠바이코」가 가장 우세할 것이다. 쿠바이코에게는 희생제물이라는 역할이 강제되지 않았고 오빠의 머리를 찾는 목적이 우선이었기에 「두꺼비」의 처녀처럼 괴물의 등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빠를 살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암묵적 압박’ 같은 거대한 폭력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쿠바이코는 혼자 지하 세계에 내려가 사신을 만나고 완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였으며 직접 저승을 탐사하였다. 쿠바이코의 조력자가 있다면 생명수를 준 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신이 대신 염소를 들어 올려 주는 등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그를 두꺼비 같은 조력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소녀 기는 직접 ‘칼’을 지니고 ‘개’를 데리고 가서, 뱀을 치밀하

29) 『대계』 8-9, 485면.

게 유인한 뒤 개와 협공하여 제거한다. 쿠바이코의 성공에는 육체적 힘, ‘완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소녀 기의 경우에도 완력이라는 자질은 유지되고 있다.

여성 주인공의 직접적 행위를 ‘주체성’ 혹은 ‘적극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두꺼비」의 처녀는 분명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쿠바이코」, 「이기」와 「두꺼비」 간 통시성을 성급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여성 인물의 육체적 능력-혹은 행동-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꺼비」는 가장 ‘소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육체적 능력에 대한 인정을 상실한 대신, 「두꺼비」의 처녀는 두꺼비라는 조력자를 통해 완성되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이 완성은 서로가 속한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일 두꺼비가 다른 인간 조력자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면 전승은 지금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했다면 두꺼비가 인간으로 변하여 처녀와 결혼했다거나 어디선가 두꺼비 대신 총각이 나타나 지네를 죽이고 처녀를 구하는 유형이 형성되었을 법도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두꺼비」속 두꺼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제출된 바 있다. 박종성은 두꺼비가 ‘외부에서 온 제3자’로서 제치를 주동한다고 보았다.³⁰⁾ 노영근은 두꺼비와 처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양육’은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³¹⁾ 이강엽은 「두꺼비」와 같은 동물보은담의 보은이 ‘맞교환’보다는 보답·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 증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³²⁾ 신호림

30) 박종성, 앞의 논문, 53~54면.

31) 노영근은 이 이야기의 연구 경향이 주로 ‘보은’과 ‘퇴치’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 축보다 처녀의 ‘양육’에 주목한 것이다. ‘보은’을 있게 한 ‘양육(키움)’을 강조한 점은 처녀의 역할에 주목한 선행 논의로서 시사점을 준다. 노영근, 앞의 논문.

32) 이강엽, 「보은담의 유형과 의미 - “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251면. 이강엽은 구비설화 전반의 ‘보은담’을 검토하면서 보답의 형태와 시은자(施恩者)의 드러남 여부에 따라 보은의 형태를 ‘양덕양보/양덕음보/음덕양보/음덕음보(陽德陽報/陽德陰報/陰德陽報/陰德陰報)’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두꺼비」는 ‘양덕양보(陽德陽報)’의 교환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강엽, 같은 글, 235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증여’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 논의를 비롯하여

은 지네가 동물이면서 악신일 때, 두꺼비는 인간이 신적 폭력에 ‘간접’ 노출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³³⁾

여기서 질문의 방향을 두꺼비 중심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다. 두꺼비의 존재에 있어서 처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처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꺼비라는 ‘용병’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약자’ 처녀가 ‘강한 조력자’에게 구출되는 구도가 아니다. 처녀와 두꺼비는 각자 자신이 속한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서 조금씩 이탈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처녀가 계층적으로도 젠더적으로도 소외된 존재임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 처녀는 인간의 일원이었지만 언제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 마을과 이승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는 존재였다.

쿠바이코, 기, 처녀 모두 저승, 제당의 손님이지만 처녀만은 제당에 들어가기 전 이미 인간 공동체에서도 외부인, 타자였다. 일부 각편에서는 처녀가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부모 대신 제물로 나섰다거나 결혼하는 줄 알고 속아서 제물로 팔려갔다고도 한다. 이는 처녀가 애초에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심우장이 『두꺼비』 속 처녀와 같은 존재를 두고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따로있는 내부자”라고 지적한 점³⁴⁾, 김영미가 ‘인주(人柱) 설화 속 희생자들을 “희생에 대한 보복을 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인물들”, 즉 “타자성을 지닌 외부인”이라고 지적한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³⁵⁾

나카자와 신이치의 논의가 유용하다.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아시아, 2004.) 나카자와는 증여에서 전달되는 (선)‘물’이 “보내는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랑이나 신뢰”를 증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물’이 인격성을 상실하고 교환가치만이 남게 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나카자와, 같은 책, 43~44면 및 53~54면.)

33) 신호림, 앞의 논문, 209~210면.

34) 심우장, 앞의 논문, 181면. 신호림도 이 ‘따로있는 내부자’를 참조하여 『두꺼비』의 처녀를 논하였는데, 이러한 존재에게 ‘공동체의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신호림, 위의 논문, 220면.)

35) 김영미, 『재난의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 시스템의 타자성: 인주(人柱)설화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75집, 국어문학회, 2020, 54면. 이상 선행 연구들의 희생양 논의는 - ‘사회적 관계의 결여’, ‘복수할 가능성이 낮음’ 등- 공통적으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개념을 참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되는 사람들에게 결여된 ‘사회적 관계’란 곧 “가까운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복수 위험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르네 지라르, 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운』, 민음사, 2000, 25~26면 참조.

한편 두꺼비 역시 자연에 살지 않고 인간의 집에 들어와 인간의 밥을 먹었다는 데서 인간-동물의 ‘문턱’을 넘은 존재이다.³⁶⁾ 그리고 두꺼비는 이 처녀를 방문한 손님이 된다. 손님으로 방문한 존재에 의해 괴물이 퇴치되었다는 점은 세 이야기가 공통적이지만, 처녀와 두꺼비는 자신의 세계에서부터 외부성·타자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만남을 이종(異種)간의 접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처녀, 두꺼비, 주변 세계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처녀와 마을 공동체를 같은 ‘인간’으로 묶고, 처녀와 두꺼비를 ‘서로 다른 인간과 동물’로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인간의 공동체에는 두꺼비의 독보다 나은 퇴치법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는 물질적 부족보다는 인지적 부족, 나아가 ‘타자성의 부족’에 기인한 면이 크다. 사람들은 괴물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괴물의 비위를 맞춰 주었고, 이는 타자를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신호림은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 설화를 통해 천상계나 초월계가 제의적 희생을 정당화하지 않게 될 때 마을이나 국가라는 사회적 공동체가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논한 바 있다.³⁷⁾ 「두꺼비」 속 처녀에게는 초월적(으로 여겨졌던) 지네보다도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동체의 폭력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을 고려하면, 「두꺼비」 속 희생 체계 역시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앞서 마을 공동체의 폭력이 또 하나의 괴물로 존재함을 언급하였는데, 공동체라는 괴물이 희생양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와는 반대로, 처녀는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두꺼비에게 밥을 챙겨 주었고 두꺼비는 그 처녀를 따랐다. 두꺼비가 은혜를 아는 동물이었던 아니든 관계없이 이 만남은 기존 공동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의 관계이다.³⁸⁾ 만일 두꺼비가 처녀 대신 마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다

36) 노영근은 이를 “두꺼비가 짐승으로서의 자질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획득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노영근, 앞의 논문, 667면.) 두꺼비의 ‘인간 밥 먹기’가 갖는 ‘변화’에 주목한 시각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고는 두꺼비가 자질을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인간의 밥을 먹었으나 짐승인 두꺼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두꺼비」 속 두꺼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37) 신호림, 「희생제의 전통의 와해와 기괴한 효행담의 탄생-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6.

38) 이 관계의 차별성에 대한 서술은, 학술대회 당시 토론을 맡아 주신 한유진 선생님이 조언해

면, 그 사람들도 두꺼비를 거두어 먹었을까? 『두꺼비』 속 소외와 타자화를 고려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처녀처럼 두꺼비를 보살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꺼비를 통한 퇴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 『두꺼비』에서 두꺼비의 존재만이 괴물 퇴치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두꺼비를 움직이게 하는, 즉 ‘두꺼비의 독’을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 유일한 존재가 처녀였다. 공동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처녀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었을 때 ‘이미’ 괴물 퇴치자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리고 이 자격이 두꺼비의 독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관련하여 이강엽이 ‘동물보은담’ 속 약자(인간)에게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닥친 행운은 자기에게 내재한 힘을 의미”⁴⁰⁾한다고 지적한 바가 참조된다. 다만 본고는 ‘보은’ 관계든 ‘증여’ 관계든 인간과 동물이 분신처럼 작동한다⁴¹⁾기보다, 두 존재가 타자성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에게 없는 힘’을 지녔기에 괴물을 퇴치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상의 고찰을 ‘여성의 괴물 퇴치 서사’라는 맥락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쿠바이코』와 『이기』에서 직접적으로 여성 주인공의 신체적 능력이 형상화되었다면 『두꺼비』에서는 ‘타자성의 힘’이 형성되었고 이 힘이 두꺼비로 하여금 처녀의 대리자로서 싸우게끔, 신체적 능력을 ‘대신’ 발휘하게끔 하였다. 쿠바이코는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오간 반면 기와 처녀는 이승의 괴물을 상대하였고 그 괴물은 뱀이나 지네뿐만 아니라 약자를 희생시키는 공동체의 폭력이기도 했다. 처녀에게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대담함도, 괴물을 들어올리고 직접 칼을 쓰는 완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타자이면서 두꺼비라는 또 다른 타자를 맞아들이는 ‘열림’이 있었다.

요컨대 『두꺼비』는 타자에 대한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타자, 외부자에 의존할 때에야 괴물을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중심, 주체, 내부의 문제는 주변부, 타자, 외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신 내용이다.

39) 이는 학술대회 당시 토론을 맡아 주신 한유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이다.

40) 이강엽, 앞의 논문, 253면.

41) 이강엽, 위의 논문, 같은 곳.

다. 조현설은 민담에서 ‘보은하는’ 동물들이 불의 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승의 정의는 외부성에 의해 실현”되고 이때 “정의는 … 주체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⁴²⁾ 이를 참조한다면 『두꺼비』는 주체(기존 공동체)와 타자(처녀, 두꺼비)뿐만 아니라 타자 간·외부자 간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정의, 즉 ‘신적·인간적 폭력의 해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된다.

나아가 타자성의 수용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타자성이 주체를 더 ‘강하게’ 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학자 우에노 나리토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등을 참조하며 타자성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자기와 타자를 이분하는 데서 오는 반유대주의 등의 폭력을 고찰하며 ‘흔들리면서 강해지는 주체’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내부로 뛰어들어온 타자성의 힘에 이끌려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윤곽이 흔들리는 장면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타자성은 자기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자아의 소유자라면 이것을 ‘두려운 낯설음’으로 간주하여 반사적으로 기피, 배제하게 된다. … 호르크하이머 등이 전망한 것은 일한 자기의 동일성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타자성과의 만남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의 가능성이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요청하는 비판적 주체란 미메시스적인 경험을 기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전면적으로 휩쓸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볼트·윈문) 주체의 모습인 것이다.⁴³⁾

요약하면 타자와의 위임이 일시적으로는 주체의 약화로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주체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⁴⁴⁾ 이를 참조하면, 『두꺼비』에서 처녀가 밥을 준 것 역시 처녀의 처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⁴⁵⁾ 이 ‘타

42) 조현설, 「구술 서사와 소수자의 정의」,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103면.

43) 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역, 『폭력=Violence』, 산지니, 2014, 162면.

44)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이 조연혜 주신 덕택에, 우에노 나리토시의 논의를 참조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45) 홍나래는 ‘여인의 보은’이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홍순언 이야기’를 논하며, “주체가

자성의 행운’은 처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까지 이롭게 하였다. 타자와의
 엮임을 거부하고 처녀를 배제한 공동체까지 행운의 수혜를 입었다는 데서,
 타자성의 힘이 가진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IV. 「두꺼비」 속 타자 간 일시적·차별적 한대

그렇다면 처녀와 두꺼비의 관계를 ‘타자 간 만남’ 이상으로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두꺼비와 처녀 사이에는 ‘주고받음’이 존재하는 듯하면서도,
 이들 사이의 ‘대칭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강엽도 지적했다시피 “동물보
 은담이 보여주는 ‘목숨의 희생’은 ‘보답’치고는 과도하다. …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느라 사람의 목숨을 걸
 지는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지나치”기 때문이다.⁴⁶⁾ 화자를 포
 함하여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기준에서만 두꺼비의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동물보은담’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판단하고 이야
 기하는 담론이기에, 인간중심성의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조현설은 모
 스의 ‘증여’ 개념으로써 ‘동물보은담’을 이해한다면 결국 인간 입장에서 유
 익한 동물과의 증여, 호혜성에 주목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꺼비」
 의 경우, 두꺼비와 처녀 간 증여의 호혜성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네와 처녀의 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⁴⁷⁾ 이 논의는 본고의
 논의를 준비함에 있어 ‘동물보은담’의 인간중심성을 환기하고 처녀와 두꺼

타자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변화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홍나
 래, 『조선 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 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 『구비
 문학연구』 제5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b, 94면.) 홍나래에 의하면, 이는 특히 조선 후기 문
 제시되었던 타자와의 관계 재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홍나래(2018b), 같은 논문.) 이
 를 참조하면, 「두꺼비」 역시 타자성의 수용과 그 혜택이라는 맥락에서 재고찰할 수 있다. 타
 자와의 관계맺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윤리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6) 이강엽, 앞의 논문, 237~238면.

47) 이상 조현설의 논의는 조현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람인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애니미즘과 동물 되기 설화에 대한 단상-』,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8., 10면 참조.

비의 관계를 인간-동물 관계의 표본으로 사유하지 않도록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김수연 역시 처녀와 두꺼비의 관계를 ‘비대칭 사회’(뱀 혹은 지네와 인간의 불화) 속 인간과 동물의 화해로 이해하면서도, 두꺼비는 어디까지나 ‘비대칭 사회에서 인간화된 동물’임을 강조하였다.⁴⁸⁾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주고받음의 대상, 매개물, 대칭성, 답례에 대한 의무 등을 전제하는 ‘증여’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태도’ 자체와 관련이 있는 ‘환대’를 경유하여 처녀와 두꺼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⁴⁹⁾ 칸트, 데리다 등의 ‘환대’를 참조하면서 인류학자 김현경은 외부인에 대한 폭력과 배제를 바라보는 윤리로서 ‘환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⁵⁰⁾ 그에 의하면 환대는 증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증여와는 엄연히 다르며, 환대를 통해 타자가 그만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⁵¹⁾ 처녀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두꺼비에게 밥을 준 것⁵²⁾, 두꺼비가 ‘인간 내부의 타자’ 처녀의 공간에 들어와 ‘인간의 밥’을 먹은 것, 일부 각편에서 두꺼비가 처녀의 위기를 알고 올렸다는 것, 제당에 들어가는 처녀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등은 두꺼비가 마치 ‘은혜를 아는 의인화된 동물’로 형상화된 상황을 보여주며, 일시적이지만 절대적인 ‘환대’가 특수한 우정⁵³⁾까지 나아간 양상을 보여준다.

48) 김수연, 앞의 논문, 469~477면. 이후 본고에서 관계의 ‘비대칭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은 김수연의 논의를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비대칭성’은 곧 ‘인간중심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9) 설화 연구에서는 「장자못」 전설,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전설, 「손님풀이」 무가 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환대 윤리를 논의한 이승수의 연구(이승수,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환대의 이중심리와 신(神)의 탄생- <장자못 전설> 산론(散論)」, 『한국언어문화』 제5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박문수 ‘증매담’에 나타난 ‘객인에 대한 환대’를 논의한 이영수의 연구(이영수, 「박문수 ‘증매담’ 연구」, 『비교민속학』 제63집, 비교민속학회, 2017), 조선 후기 ‘간통 설화’ 및 남녀간 ‘응보 설화’ 등을 통해 타자에 대한 환대와 적대,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를 논의한 홍나라의 연구(홍나라,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주체의 윤리적 위기 의식과 책임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a; 홍나라(2018b), 앞의 논문) 등이 참조된다.

5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51) 김현경, 위의 책, 193면.

52) 신호림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처녀가 두꺼비를 먹인 것에 대하여, 처녀와 두꺼비의 개인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능동적 행위, ‘선(先) 증여’로 본 바 있다. 신호림(2013), 앞의 논문, 217면.

53) 김현경, 위의 책, 197면.

다만 본고에서 ‘환대’를 참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꺼비』의 ‘비대칭성’, 인간중심성을 전제로 한 접근이다. 본고는 『두꺼비』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처녀와 두꺼비가 공유하는 타자성, 외부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타자가 또 다른 타자에게 행할 수 있는 윤리에는 ‘호혜성’보다 ‘환대’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설사 두꺼비의 희생을 순수증여로 독해할 수 있더라도 그 희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⁵⁴⁾ ‘환대’의 개념 역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윤리이기에 인간 혹은 ‘의인화된’ 동물 이상의 동물을 환대의 주체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동물의 입장에서 ‘환영’, ‘대우’, ‘인정’ 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두꺼비의 입장에서 환대나 우정을 실천했다는 해석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녀와 두꺼비 간 환대와 우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후 처녀가 복을 누리면서도 두꺼비를 가끔 기억했을 것이라는 인정적 상상은 가능하나, 화자들의 관심은 처녀의 복, 그리고 두꺼비로부터의 교훈에 있기 때문이다. 두꺼비가 배경화되고⁵⁵⁾ 설화의 화자들은 두꺼비에게서 인간이 ‘알아야 할’ 보은을 되새긴다.

따라서 이러한 우정은 ‘보편적 박애’이기보다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교류’의 성격이 강하다. 처녀와 두꺼비의 교류는 다른 사람 혹은 동물에게로 파생되지 않으며 여러 조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처녀는 밥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두꺼비가 다른 상황에서도 독을 뽑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별적이고 특수한 상황 위에 ‘밥’과 ‘독’이 오간 것. 즉, 이들의 ‘주고받음’은 두꺼비-처녀의 외부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본고에서 환대와 우정의 ‘힘’을 언급하는 것은 이 관계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처녀의 괴물 퇴치 능력을 구명하는 차원에서다. 두꺼비와의 일시적 환대/우정이 처녀에게 지내와 공동체의 폭력이라는 괴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본고는 ‘만남’ 자체가 만들어낸 힘으로 해석하나 타자 간 동등한 수준의 ‘연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처녀-두꺼비와 대조되는 처녀-공동체(마을)의 관계는 어떠한

54) 김수연, 앞의 논문, 476~477면.

55) 신희림(2013), 앞의 논문, 219면.

가? 여타 인신공희 제물들과 유사하게, 처녀가 인간 공동체 내에서도 배제되는 타자임은 앞서 확인하였다. 괴물이 퇴치되고 나서는 어떠한가? 처녀는 괴물을 퇴치하고 나서야 다시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제물의 지위에서 벗어난 처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며 ‘특별한’ 존재가 된다. 후일담이 부가될 경우, 처녀가 이전의 궁핍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경우는 없다. 처녀는 제물이 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보상-결혼을 통한 지위 상승, 부모의 부귀 등 - 을 누린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를 통해 처녀의 ‘복’을 이해한다면 누가 처녀에게 보상했는지, 일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처녀가 직면해야 했던 공동체의 폭력을 상기한다면, 공동체가 처녀에게 재물을 주었다거나, 나라에서 상을 주었다거나, 처녀가 ‘우연히’ 귀한 신분의 남성과 결혼했다는 것 등은 처녀의 ‘밥 주기’와 같은 층위의 (‘증여’ 자체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될 수 없다. 본디 ‘증여’ 개념이 포틀래치 등에서 발견되는 선의의 낭비, 호혜성의 원리⁵⁶⁾ 등을 설명하면서 확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의 ‘뒤늦은 책임 수행’을 호혜성을 충족하는 증여로 독해할 수 있을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실제로 어떤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로서의 호혜성⁵⁷⁾과, 공동체가 처녀에게 갖는 채무감은 동궐에서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공동체에 의한 처녀의 타자화와 배제를 두꺼비가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책임에서 놓여나기 때문이다. 두꺼비가 없었다면 처녀 희생 관습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공동체는 처녀에 대한 부채의식, 죄책감 등을 돌이켜보지 않았을 것이다.

설화의 담화 층위에서도 공동체의 책임은 분명히 추궁되지 않는다. 화자들이 다시, 여전히 괴물에 대한 공희를 납득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처녀가 얻은 행복은 공동체 전체의 연대 의식이 발현된 결과라기보다는 처녀 개인의 ‘일시적·배타적 환대’가 낳은 ‘복’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꺼비』에서 공동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증여’를 탐색하더라도, 처녀가 행한 “개인적 차원의 증여”⁵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

56) 나카자와, 앞의 책, 67면; 마빈 해리스, 박종철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7(4판), 158~175면.

57) 마빈 해리스, 위의 책, 172면.

58) 신호림(2013), 앞의 논문, 217면.

각된다.

정리하자면, 이 장의 논의는 「두꺼비」를 ‘보은담’보다는 한 인간이 인간 내의 배제와 추방을 극복하는 서사로 읽는 작업이었다. 처녀는 다른 범주의 타자와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외부의 폭력(지네), 그리고 자신을 배제했던 내부의 폭력(공동체)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처녀를 희생양으로 몰았던, 혹은 방치했던 공동체는 오히려 자신들이 배제하고 추방하였던 존재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화자들이 강조하는 ‘보은’의 인간중심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타자성의 가치는 인간이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윤리이다. 지금 우리가 「두꺼비」의 교훈을 재인식한다면, 그 교훈은 ‘보은’뿐만 아니라 ‘타자성’을 놓치지 말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V. 나가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시베리아 「쿠바이코」, 중국 「이기」를 거쳐 한국 「두꺼비」까지, 구비전승에서 괴물을 퇴치하는 여성의 역할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두꺼비와 처녀의 관계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증여’ 등을 재론하기보다 인간과 동물 내의 차이, 관계의 한계 등을 적극 인정하는 논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베리아 「쿠바이코」, 중국 「이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 「두꺼비」에는 지네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폭력이 이중의 ‘괴물’로서 존재하며, 이 괴물을 극복하는 것이 처녀의 주요 퇴치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이 퇴치는 처녀가 일시적으로나마 두꺼비를 절대적으로 환대했기에 가능했으며, 두 존재는 각자의 세계에서 외부성과 타자성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서로에게 타자이자 외부자인 처녀와 두꺼비는 일시적인 환대를 성취하고 괴물을 퇴치한다.

기존의 인간 공동체가 약자를 배제하는 임시방편으로 폭력을 지속해 온 데 비해, 처녀와 두꺼비는 타자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의 교류는 일시적이고 차별적이거나, 인간 공동체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타자성에 의존하여 괴물을 퇴치할 수 있었다. 이 타자성, ‘다름’의 영향력이

『두꺼비』에서 괴물을 퇴치하는 힘이 된다. 처녀가 직접적 완력 대신 타자를 움직였다는 것은 여성 주인공이 가질 수 있는 ‘퇴치 능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두꺼비』의 처녀는 쿠바이코나 이기와 달리 완력도 지니지 못하고 수동적 제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처녀는 이 불리함을 다른 타자와의 만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추가적 보상을 얻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본고는 향후 동물-인간 관계를 논의하는 방법론을 재고할 숙제를 남긴다. ‘인간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동물과 인간의 이야기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형상화의 차이를 논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부록의 자료 목록에서 보듯 『대계』 수록 『두꺼비』의 69개 각편에서 화자의 성별은 남 39 對 여 30으로 나타나기에, 이 이야기는 성별에 관계없이 인기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소외된 처지의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얻는 내용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논의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1. 8. 1. 접속.
- 干寶, 임동석 역주, 『搜神記』(完譯詳註 漢典大系 17), 동문선, 1997.
-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中國民間故事集成·福建卷』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福建卷』, 北京: 中國ISBN中心, 1998.
- Holmberg, Uno, *The Mythology of All Races: Finno-Ugric, Siberian Volume IV*, Boston: Marshall Jones, 1927.

2. 단행본

-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3.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 손진태,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54.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4.
- 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옮김, 『폭력=Violence』, 산지니, 2014.
- 르네 지라르, 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 마빈 헤리스, 박종철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7(4판).
-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3. 논문

- 곽진석, 『韓國의 靈魂旅行談과 시베리아 샤머니즘』,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329~349면.
- 김수연, 『동물보은담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화해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38집, 열상고전연구회, 2013, 457~485면.
- 김영미, 『재난의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 시스템의 타자성: 인주(人柱)설화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75집, 국어문학회, 2020, 29~64면.
- 노영근, 『<두꺼비 보은>형 민담의 유형분류와 해석』, 『비교민속학』 제46집, 비교민속학회, 2011, 643~680면.
-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신연우, 「〈바리공주〉와 중국 〈妙善〉 및 유사설화 비교의 관점」, 『한국무속학』 제27집, 한국무속학회, 2013, 107~149면.
- 신호림, 「〈지네장터〉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극복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1~40면.
- _____, 「희생제의 전통의 와해와 기괴한 효행담의 탄생-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6, 241~269면.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제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면.
- 오세경, 「희생서사(犠牲敘事)의 구조(構造)와 인물(人物) 연구- <바리공주> · <지네장터> · <심청전>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17~142면.
- 이강엽, 「보은담의 유형과 의미 - “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7~261면.
- 이승수,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환대의 이중심리와 신(神)의 탄생- <장자못 전설> 산론(散論)」, 『한국언어문화』 제5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5~25면.
-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81~118면.
- _____, 「박문수 ‘중매담’ 연구」, 『비교민속학』 제63집, 비교민속학회, 2017, 261~290면.
-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 인신공희 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133~156면.
- 조현설, 「구술 서사와 소수자의 정의」,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89~112면.
- _____,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람인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애니미즘과 동물 되기 설화에 대한 단상-」, 『한국구비문학회 2020년 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구비문학회, 2020.8., 1~11면.
- 홍나래, 「조선 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주체의 윤리적 위기의식과 책임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a, 299~333면.
- _____, 「조선 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 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제 형성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5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b, 75~104면.

A study on narratives about women defeating monsters
in oral transmission

- Siberia Kubaiko, China Liji, and Korea Toad and Maiden -

Kim, Junhee

This paper explores narratives about women defeating monsters, through the story of Siberia Tatar 'Kubaiko'(*Kubaiko* for below), 'Liji slays the snake' from Fujian, China(*Liji* for below), and Korean 'Toad and Maiden'(*Toad* for below).

First of all, in *Kubaiko*, the main character Kubaiko revives his brother killed by the monster, through visiting the underworld as a guest, and she acquires superhuman abilities. In *Liji*, a girl, Liji is said to have entered the snake's den with a sword and punished the snake which had demanded sacrifice till then. While in the two tales the female protagonists are clearly seen to overpower the monster, the maiden in Korean *Toad* appears as a sacrifice, who is relatively limited in free movement. However, the maiden was the only being that made the toad move, and played a role in making the monster public. Maiden is an 'other' excluded from the human community, and the community's violence was another monster in this tale. However, the maiden and the toad, who are the others and outsiders to each other, cross the threshold and achieve temporary hospitality to fight off the monster. While the human community continued violence as a temporary measure excluding the weak, the maiden and the toad actively accept meeting with others. Their relationship was temporary and exclusive, but the people(human community) were able to be released from monster by relying on otherness they did not have. This otherness, the influence of 'difference' becomes the power to fight monsters in *Toad*. The maiden's eradication the monster by allowing the other to move for her sake, shows an aspect of the 'fighting ability' that a female protagonist can have. Unlike Kubaiko and Liji, the Korean maiden was in danger of becoming a passive sacrifice without physical strength, but succeeded in saving herself and obtaining additional compensation by offsetting the disadvantage by meeting the others.

keywords: Kubaiko, Liji, Toad and Maiden, monster, eradication, violence, otherness, hospitality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 ~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

[부록] 『한국구비문학대계』 내 「두꺼비와 처녀」 각편 자료 목록

자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신호림(2013), 앞의 논문, 224~227면의 ‘<지네장터> 설화 작품 목록’이 큰 참조가 되었다. 해당 표를 참조하면서, 제보자 정보 및 채록시기를 밝히고, 일부 미기재 자료 및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증편 대계’로 표기)의 최근 자료를 추가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번호	제목	제보자 정보 (성별, 연령)		채록시기	지역	출처(『대계』 권수, 면수)
1	두꺼비의 보은	남	66	1979.7.15	경기 양평군 양동면	1-3, 364~366
2	두꺼비의 지네 퇴치	남	63	1980.9.21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1-4, 1015~1018
3	은혜 깊은 두꺼비	남	46	1981.7.17	경기 강화군 화도면	1-7, 531~533
4	한씨(韓氏) 시조 이야기	남	57	1981.7.17	경기 강화군 화도면	1-7, 533~534
5	은혜 깊은 두꺼비	여	66	1981.8.11	경기 강화군 양도면	1-7, 755~756
6	처녀와 지네	남	68	1982.7.18	경기 용진군 영종면	1-8, 432~434
7	지네굴 전설	남	75	1982.7.17	경기 용진군 영종면	1-8, 484~485
8	은혜 깊은 두꺼비	남	85	1983.1.16	경기 용인군 외사면	1-9, 545~548
9	두꺼비의 보은	남	72	1981.9.6	강원 양양군 서면	2-5, 334~338
10	두꺼비의 보은	남	60	1983.7.20	강원 횡성군 청일면	2-6, 316~317
11	은혜깊은 두꺼비	남	71	1983.5.16	강원 영월군 영월읍	2-8, 452~455
12	오근장의 유래	남	71	1980.8.25	충북 청주시	3-2, 219~221
13	청주한씨(淸州韓氏) 시조 장가든 내력	남	74	1980.10.5	충북 청원군 남일면	3-2, 655~656
14	두꺼비의 보은	남	71	1980.3.1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4-2, 75~77
15	두꺼비의 보은	여	70	1980.7.29	충남 대덕군 기성면	4-2, 549~550
16	두꺼비와 지네	여	78	1984.8.28	전북 정읍군 고부면	5-5, 305~306
17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	여	71	1985.3.23	전북 정읍군 정우면	5-5, 701~702
18	지네와 두꺼비	남	76	1985.4.15	전북 정읍군 태인면	5-6, 100~102
19	두꺼비의 보은	남	71	1983.7.31	전남 고흥군 점암면	6-3, 443~445
20	두꺼비의 보은	남	60	1983.8.1	전남 고흥군 점암면	6-3, 497~500
21	은혜 깊은 두꺼비	남	87	1984.3.24	전남 승주군 쌍암면	6-4, 203~205
22	은혜 깊은 두꺼비	여	71	1984.3.30	전남 승주군 상사면	6-4, 560~561
23	두꺼비의 보은	여	71	1984.7.19	전남 해남군 삼산면	6-5, 175~178

24	은혜 깊은 두꺼비	남	64	1984.11.10	전남 해남군 화산면	6-5, 329~333
25	은혜 깊은 족제비	남	85	1984.5.19	전남 신안군 압해면	6-6, 362~364
26	지네장터의 두꺼비의 보은	여	54	1982.1.13	전남 장성군 황룡면	6-8, 519~529
27	지네 장터	남	55	1984.7.27	전남 화순군 능주읍	6-10, 92~94
28	은혜 깊은 두꺼비	남	55	1986.5.27	전남 보성군 벌교읍	6-12, 322~324
29	처녀와 두꺼비	여	61	1979.2.25	경북 월성군 현곡면	7-1, 299~300
30	두꺼비와 지네	남	67	1979.10.4	경북 성주군 성주읍	7-4, 69~70
31	은혜깊은 두꺼비	여	57	1979.5.26	경북 성주군 월항면	7-5, 34~36
32	두꺼비와 지네의 싸움	남	70	1980.2.8	경북 영덕군 강구면	7-7, 380~381
33	처녀 구한 두꺼비	여	60	1981.8.7	경북 상주군 은척면	7-8, 1205~1212
34	제물로 바쳐진 처녀와 두꺼비	남	64	1981.7.23	경북 안동군 임동면	7-9, 288~292
35	처녀를 구한 두꺼비	남	81	1981.8.2	경북 안동군 북후면	7-9, 668~669
36	두꺼비의 보은	남	54	1982.7.23	경북 봉화군 소천면	7-10, 575~578
37	두꺼비의 보은	여	74	1983.9.2	대구시	7-13, 393~394
38	득천한 두꺼비	여	76	1984.7.10	경북 선산군 고야면	7-16, 27~28
39	두꺼비를 도와주고 죽음을 면한 새댁	여	72	1984.4.14	경북 예천군 보문면	7-17, 355~357
40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구한 두꺼비	여	59	1984.2.21	경북 예천군 용문면	7-17, 567~569
41	두꺼비의 보은으로 목숨을 건진 처녀	여	79	1984.2.24	경북 예천군 개포면	7-18, 396~399
42	아주당(鵝州堂) 전설	남	69	1979.7.28	경남 거제군 신현읍	8-1, 59~63
43	지네와 두꺼비	여	74	1979.7.30	경남 거제군 장막면	8-1, 211~214
44	은혜 깊은 두꺼비	남	미상	1980.8.8	경남 진양군 일반성면	『대계』 미수록
45	은혜 깊은 두꺼비	여	68	1980.2.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8-5, 133~134
46	두꺼비와 지네	남	54	1980.5.24	경남 거창군 웅양면	8-5, 637~640
47	은혜 깊은 두꺼비	남	61	1980.8.10	경남 거창군 마리면	8-6, 829~830
48	두꺼비의 보은(報恩)	여	68	1981.1.23	경남 밀양군 무안면	8-7, 636~638
49	처녀와 두꺼비	남	미상	1981.7.30	경남 밀양군 밀양읍	『대계』 미수록
50	두꺼비와 처녀	여	64	1982.8.9	경남 김해군 이북면	8-9, 742~744
51	두꺼비의 보은	여	68	1982.8.6	경남 김해군 주촌면	8-9, 1163~1164
52	은혜 깊은 두꺼비	여	47	1982.1.18	경남 의령군 부림면	8-10, 468~470
53	두꺼비와 각시	여	72	1982.2.4	경남 의령군 지정면	8-11, 436~438

54	두꺼비의 보은	여	76	1984.7.22	경남 울주군 청량면	8-13, 61~64
55	두꺼비와 처녀	여	57	1984.8.22	경남 울주군 두동면	8-13, 283~287
56	두꺼비의 보은	남	72	1984.2.19	경남 하동군 화개면	8-14, 150~151
57	두꺼비의 보은	남	75	1984.7.20	경남 하동군 악양면	8-14, 572~573
58	처녀와 두꺼비	남	53	1984.7.22	경남 하동군 횡천면	8-14, 672~674
59	두꺼비의 보은	남	75	1984.7.22	경남 하동군 횡천면	8-14, 697~698
60	두꺼비와 처녀	남	74	1980.11.23	제주 제주시 오라동	9-2, 733~735
61	바보와 두꺼비가 구한 처녀	여	70	2009.2.12.	경기도 김포시	증편 대계
62	은혜 갚은 두꺼비	여	82	2017.2.18.	경기도 동두천시	증편 대계
63	은혜 갚은 두꺼비	남	81	2010.2.19.	강원도 홍천군	증편 대계
64	은혜 갚은 두꺼비	여	78	2018.2.25.	충남 계룡시	증편 대계
65	은혜 갚은 두꺼비	여	77	2009.2.10.	충남 금산군	증편 대계
66	자신을 길러 준 처녀를 구해 준 두꺼비	여	71	2012.1.17.	경남 산청군	증편 대계
67	지네와 두꺼비 - 지네장터	여	84	2013.3.27.	강원도 인제군	증편 대계
68	지네와 싸워 처녀를 구한 두꺼비	남	78	2009.1.23.	경북 청송군	증편 대계
69	큰애기와 두꺼비	남	83	2018.3.6.	광주광역시	증편 대계